

## 상해 『독립신문』 소재 「피눈물」의 저자 고증

김 주 현\*

### 요 약

「피눈물」은 『독립신문』 창간호부터 제14호까지 11회에 걸쳐 ‘문예란’에 연재되었다. 3.1독립운동을 소설 장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동안 이 작품의 저자 기월(其月)이 유학생, 주요한, 또는 이광수일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 작품의 문체나 서사를 보면 초보 소설가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이 창간호부터 실렸다는 것은 신문 창간과 소설 창작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신문사와 무관한 제3자의 작품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다.

이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월과 이광수의 유사성, 인접성이 현저하다. 그리고 이광수의 문체와 너무나 닮아 있다. 작품의 문체와 사상이 이광수를 벗어나서 설명하기 어렵다. 「개조」처럼 신문의 발간과 더불어 「피눈물」을 이광수가 써서 연재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광수가 3.1운동을 다룬 작품으로 「재생」, 「유랑」 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그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피눈물」이 발견됨에 따라 그의 상해 시절은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제 「피눈물」도 이광수의 문학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상해 시절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 작품은 상해 망명 시절 이광수의 문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피눈물, 독립신문, 기월, 3.1운동, 이광수, 주요한, 무정, 팔 짝헌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기월과 이광수의 유사성
3. 기월과 이광수의 인접성
4. 『피눈물』과 『무정』의 문체적 동일성
5. 마무리

## 1. 들어가는 말

1919년 상해에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독립신문』이 발간되었다. 일제 강점기 국외에서 수많은 신문 잡지들이 발간되었지만, 그래도 상해 『독립신문』 만큼 지속적으로 발간된 것은 없다. 이 신문에는 논설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가와 소설이 실렸다. 이미 논설이나 시가에 대한 기존 논의는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신문에 실린 소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피눈물』은 창간호(1919.8.21.)부터 제14호(1919.9.27.)까지 11회에 걸쳐 ‘문예란’에 연재되었는데, 3.1독립운동을 소설 장르에서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 작품을 처음 소개한 민현기는 저자를 ‘기월’로 소개했지만, 김종희는 ‘공월’로 쓰고 있다.<sup>1)</sup> 후자는 ‘其’를 ‘共’으로 잘못 읽었

1) 이 작품이 소개된 선집은 다음과 같다. 민현기 편,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투쟁 소설선집』,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9 ; 해외동포문학편찬사업추진위원회 편, 『중국 조선족 소설1』, 해외동포문학편찬사업추진위원회, 2006. 그러나 이들 선집에는 모두 제1회가 빠진 채 제2회부터 실려 있다.

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其月’이 누구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모든 작품은 저자를 갖고 있고, 그 저자에 대한 고찰은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 한 연구자는 『피눈물』이 “춘원의 작품으로 보기에 난점이 있어 망명한 유학생”의 작품일 것으로 추측하였다.<sup>2)</sup> 또 다른 연구자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기월’이 주요한의 필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sup>3)</sup> 그런데 최근 『피눈물』의 저자에 대해 새로운 언급이 있어 주목된다.

그는 국내 상황을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셈이다. 한편 <피눈물>의 지은이 ‘기월’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려진 바 없다. 이미 일제의 감시망 안에 놓여 있던 상해에서 신변의 안전을 위해 익명을 쓴 것이겠지만, 아마도 이광수 자신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다. 당시 「독립신문」의 발행이 이광수의 책임 아래 있었다.<sup>4)</sup>

표언복은 『피눈물』의 저자 기월이 이광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것은 1) 이 소설이 국내의 상황을 소설로 취했다는 점, 2) 이광수는 신문 기자로 국내 사정에 밝았다는 점, 3) 이광수가 상해 『독립신문』의 주필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광수가 저자로 인정받으려면 직접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피눈물』의 저자에 대해 자세히 접근해보려고 한다.

2) 김윤식, 『개정 증보 李光洙와 그의 時代1』, 솔출판사, 1999, 704면.

3) 이상경, 「상해판 『독립신문』의 여성관련 서사연구 : “여학생 일기”를 중심으로 본 1910년대 여학생의 교육 경험과 3·1운동」, 『페미니즘연구』, 10-2, 한국여성연구소, 2010, 116면, 주) 14.

4) 표언복, 「중국 유이민 소설 속의 3·1운동」, 『기독교사상』 711, 대한기독교서회, 2018.3, 38면.

## 2. 기일과 이광수의 유사성

『피눈물』은 3.1운동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다가 희생된 한 소녀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야기가 해외 언론에 먼저 실렸다.

한국의 독립시위에 참가한 한 소녀가 선언서를 들고 있자, 일본군은 그 소녀의 손을 칼로 잘랐다. 그러자 소녀가 다른 손으로 선언서를 들자 그 손마저 잘라버렸다.<sup>5)</sup>

1학년에 다니는 어린 학생이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자, 일본 헌병은 검으로 그의 오른손을 잘랐다. 오른손이 잘린 학생은 다시 왼손에 한국 국기를 들고 더욱 높은 소리로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러자 일본 헌병은 다시 그의 왼손마저 잘랐다. 두 손이 잘려나간 학생이 더욱 큰 소리로 독립만세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으로 학생의 가슴을 찔렀다. 이렇게 학생은 검에 찔려 죽어갔다.<sup>6)</sup>

첫 번째 것은 『엘 파소 헤럴드』(1919.3.14.)에 실린 내용이고, 두 번째 것은 『국민공보』(1919.4.12.)에 실린 기사이다. 전자에서는 독립선언서를 든 소녀가, 후자에서는 태극기를 든 여학생이 두

5) 이 내용은 텍사스주의 지역지 『엘 파소 헤럴드(el paso herald)』 1919년 3월 14일자 1면에 실린 기사로 베이징발 AP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S 뉴스, 『독립선언 든 소녀의 손목을 잘랐다 삼일절 목격담』, 2019.02. 14. 이러한 내용은 「GIRL'S HANDS CUT OFF」이라는 제목으로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1919년 3월 15일자에도 실렸으며, 같은 해 미국필라델피아에서 발간된 『"Mansei" Little Martyrs of Korea』(Korean Information Bureau, 1919)에도 『The Fine Art of Japanese Brutality』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이 자료를 제공해주신 도산학회장 이명화 박사께 감사드린다.

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중국신문 한국독립운동기사집(Ⅱ)-3.1운동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171면.

팔을 잘렸다고 했다. 『국민공보』에도 실린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이야기의 국내외에 꽤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마침 羣衆 속에서 큰 萬歲 소리가 날어난다. 본즉 十七八歲나 되었을 女學生이 왼편 팔에서 흐르는 피를 空中에 내어 뿌리며 太極旗를 둘러 「大韓獨立萬歲」를 불은다. 하얀 그 女學生의 저고리와 치마에는 무설(십-인용자)게 피가 흘렀다. 日兵의 손에 잡혔던지 머리채가 풀어져 或은 가슴으로 或은 귀뒤편으로 흘러나왔다. 그는 놉히 두 팔을 들어 太極旗를 두르며 입을 열어, 「大韓同胞여. 銃과 같이 우리 肉體(體)는 죽일지언정 精神은 못 죽이리라. 우리는 죽거던 鬼神으로 大韓獨立의 萬歲를 불으리라.」 할 때에 長劍이 번뜻이자 女學生의 우편 손목이 太極旗를 잡은 대로 짜에 떨어지고 그리로서 피가 소사 周圍에 그의 兄弟들의 衣服을 적시다. 不過 一二秒 동안에 羣衆의 神經은 電氣를 마른 것갓히 衝動되고 피는 끌어오르다. 處女는 남은 팔도 그 칼에 찍혀 피뭇은 팔을 내어 두르며 「同胞여, 忿을 참으시오. 大韓獨立萬歲를 부릅시다.」 할 때에 또 한번 칼이 번뜩이며 處女는 왼편 팔이 피뭇은 저고리 소매와 함께 떨어질 때에 處女는 팔에 피를 日本憲兵의 얼굴에 뿌리며 찌꾸려지다. (1919.9.18)

기월은 두 팔 잘린 소녀의 이야기를 써서 1919년 8월 21일 『독립신문』의 창간호부터 실었다. 그가 직접 현장을 목격하였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아니면 『국민공보』를 통해 접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독립신문』은 이광수가 주필로 있던 신문이다.

「萬歲! 萬歲!」

어엿븐 韓山의 少女가 웨칠 때  
日兵의 칼이 하얀 그의 두 팔을 찌었다

「萬歲! 萬歲!」

어엿븐 韓山의 少女가 웨칠 때

슬난 피줄기가 山과 들을 向하야 벗었다  
 「萬歲! 萬歲!」  
 日兵의 槍에 찢난 蓮꽃 갓흔 少女의 唇은  
 永遠히 쓴치지 안난 「萬歲」로 써렀다  
 「萬歲! 萬歲!」  
 無光한 날은 피에 저즌 少女의 同胞를 빗최고  
 紗에 찢러진 흰 팔씩은 太極旗가 쥐였다  
 「萬歲! 萬歲!」  
 안개갓흔 그의 피방울을 萬歲가 되여 東海中에  
 여들 섬나라가 그의 압힘을 맛보리라  
 「萬歲! 萬歲!」  
 韓山의 兒孩들아 可憐한 누이의 무덤을  
 自由의 꽃과 피와 눈물로 꾸밈지어다.<sup>7)</sup>

이 시는 「팔 찢힌 소녀」로 이광수가 주필로 있던 『신한청년』 창간호(1919.12)에 실렸다. 이광수는 독립을 외치다가 두 팔이 잘려 죽어간 소녀의 애국혼을 노래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피눈물」과 같다. 이 정도는 단순히 유사성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사건이고 어떤 이(기월)는 소설로, 어떤 이(이광수)는 시로 형상화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눈물」의 “불상한 두 동생의 무덤 꽃으로 꾸미고”(11)라는 결말 부분과 작품 제목은 위 시의 ‘可憐한 누이의 무덤을 / 自由의 꽃과 피와 눈물로 꾸밈지어다.’라는 마무리와 그대로 닿아있다.

이날 밤에 共同墓地에서 萬歲 소리가 나다(完)(1919.9.27.)

京城 及 義州 共同墓地에서 밤에 怨魂 萬歲와 哭소리가 들 니다

7) 春園, 「팔 찢힌 少女」, 『신한청년』 1, 1919.12, 83면. 밑줄 처리는 강조를 위해 인용자가 함. 이하 동일.

長白

오난 것은 핏비나 부난 것은 비린 바람  
 느진 몸(봄-인용자) 下弦달이 北邱山에 그무른 제  
 어이한 세우름 소리 쓴코닛고 하더라  
 倭칼에 흐르난 피 黃泉까지 흘너들어  
 千古에 잠든 녀슬 다 불너내단 말가<sup>8)</sup>

『피눈물』에서 대한문 앞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팔이 잘려 죽어간 처녀 정희와 그녀의 팔을 자른 일본 헌병을 차서 거꾸러트렸다가 일본 순사에 의해 죽임을 당한 청년 윤섭은 함께 경성(공덕리) 공동묘지에 묻힌다. 그런데 기월은 그들이 무덤에 묻힌 날 ‘공동묘지에서 만세 소리’가 났다고 했다. 그리고 이광수는 위 시에서 3.1 운동에서 일본 칼에 숨진 영령들을 노래했는데, 그 제목이 『京城 及 義州 共同墓地에서 밤에 怨魂 萬歲와 哭소리가 들니다』이다. 이 시는 일본 순사(왜)의 칼에 숨진 ‘영혼’들을 불러낸다는 점에서 『팔 짝힌 소녀』에 이어진 시다. 모두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희생된 영혼들을 추도한 시이다. 그런데 기월이 경성 ‘共同墓地에서 萬歲 소리가 나다’고 한 것은 춘원이 ‘京城 及 義州 共同墓地에서 밤에 怨魂 萬歲와 哭소리가 들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 어린 두 동상의 靈魂을 밧아주시옵고 괴로운 世上에 남은 父母와 兄弟의 슬픔을 慰勞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식지나 저희 貴해하는 동생들은 怨讐의 劍 밧헤 두시랴나 잇가. 다음번 봄바람에는 불상한 두 동생의 무덤 窸으로 꾸미고 그들이 爲해 죽은 獨立을 엇엇슴을 告하게 하소서. 아멘, (1919.9.27.)

8) 長白, 『京城 及 義州 共同墓地에서 밤에 怨魂 萬歲와 哭소리가 들니다』, 『신한 청년』 1호, 1919.12, 115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쇼부직하시고, 스랑이 만호샤 저희 죄인 무리를 항상 스랑하시는 하날 우헤 계신 우리 쥬 여호아 하느님 아버지시여」 하고 위션 하느님을 차진 뒤에 「이제 저의 철업고 지각업고 죄 만코 무지몽미하고 어리석은 …(중략)… 죄인 무리들의 마음에 계시사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는 무지몽미한 죄인 무리라 무슨 공죄 잇서 감히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 여호와와 비오리까마는 다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져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공로를 의지하여야 비옵나이다. 아멘」<sup>9)</sup>

한편 「피눈물」에는 장례식장에서 추도 예배를 올리는 장면이 나온다. 문학 작품에서, 특히 소설에서는 조금 예외적인 모습이다. 그런 모습은 3.1운동 이전에 발표된 이광수의 「무정」에도 나타난다. 기도문은 ‘하느님’에 대한 호명, 기도 본 내용, 그리고 ‘아멘’으로 마무리된다. 전자는 3.1운동에서 죽어간 두 영혼을 위한 기도이고, 후자는 자신의 모든 일을 주관해달라고 비는 내용이다. 이러한 기도 내용은 「피눈물」과 거의 같은 시기 발표된 이광수의 시에도 등장한다.

主여 당신은 人類를 罪에서 救援하여 永生의 天國에 引導하시러 오섯습니다. 罪! 果然 人類는 鴉片에 中毒한 모양으로 罪에 中毒하였습니다. 鴉片에 中毒한 者가 鴉片을 아니 먹고 못 백이는 모양으로 人類는 罪를 아니 짓고는 못 배기는 모양 이외다. 獨立運動갓치 神聖한 運動을 하는 者들도 豺狼의 압해 쫓기는 羊의 무리 갓흔 者끼리도 서로 다토고 嫉視하고 誣陷합니다그려. 主여 十字架에 흘니신 피로 이 모든 罪를 씻서주시압소서.<sup>10)</sup>

9) 춘원, 「무정」(82), 『매일신보』, 1917.4.18.

10) 春園, 「크리스마스의 祈禱」, 『독립신문』, 1919.12.27.



하나님이시어 / 불상한 이의 發願을 들어주신다는 / 하나님  
 이시어 / ... (중략) ... / 「지아비를 일흔 안해, 아들딸을 일흔  
 어머니 / 주여 그네의 피눈물을 써서주시고 / 소원을 일워주소  
 서」<sup>11)</sup>

전자는 「크리스마스기도」이며, 후자는 「광복 기도회에서」이다. 이 역시 ‘주’, 또는 ‘하나님’에 대한 호명과 더불어 기도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전자는 인류의 죄를 구원해달라는 것이고, 후자는 불상한 이들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것인데, 이 시들은 앞의 기도들처럼 한결같이 ‘주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후자에서는 “지아비를 일흔 안해, 아들딸을 일흔 어머니 주여 그네의 피눈물을 써서주시고 소원을 일워주소서”라고 하여 독립운동으로 남편과 자녀를 잃은 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나온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피눈물’을 씻어주고 ‘소원’ 곧 광복을 이룩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 내용은 자식과 형제를 잃은 부모 형제의 슬픔(피눈물)을 위로해주고 독립을 얻게 해달라는 「피눈물」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기도 형식이 「재생」에도 이어짐은 당연하다. 또한 「피눈물」에는 소돔과 고모라, 소금기둥 등 『구약성서』 「창세기」의 인유와 더불어 ‘낙원’(2), ‘영광을 찬양’(6) 등 기독교적 어휘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월과 기독교의 인접성을 보여준다. 이광수는 자신이 기독교도임을 명백히 했고,<sup>12)</sup> 그런 점에서 이광수와 기월의 유사성은 충분하다.

11) 春園, 「光復祈禱會에서」, 『독립신문』, 1921.2.17.

12) 이광수는 「朝鮮耶蘇教會의 欠點」(『청춘』, 1918.11, 76-82면)과 「신생활론」(『매일신보』, 1918.10.11-19)에서 기독교 사상을 논하고 있다. 그는 후자에서 “吾人は 沒批判, 無意識으로 耶蘇敎의 信徒가 되얏”(1818.10.11.)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회(1918.10.19.)에서는 ‘창세기’를 언급하였다.

### 3. 기일과 이광수의 인접성

『피눈물』 첫회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普成學校의 大門에 큰 兩 球燈은 꺼졌다. 이것도 日人의 威力이다.(1)<sup>13)</sup>

普成門에 다달았다. 나는 놀랐다. 놀다라던 소솔大門(軒軒 나들던)은 간 곳이 업고 門牌 만히 달닌 벽돌 洋式門 두 기둥 위에 乳白色 球形電燈이 곤두서고……<sup>14)</sup>

『피눈물』의 서술자는 음력 2월 초승달이 넘어가고 어두워지자 일인들의 위력으로 보성학교 대문의 양등이 꺼졌다고 했다. 곧 보성학교 대문에 달린 2개의 ‘球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것은 보성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서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광수는 1914년 12월 『중학교방문기』를 썼는데, 첫번째 방문한 곳이 ‘보성학교’였다. 그는 보성학교를 방문했을 때 ‘두 기둥 위에 乳白色 球形電燈’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중학교방문기』처럼 『피눈물』에서도 ‘大門에 큰 兩 球燈’이라 하여 보성학교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sup>15)</sup>

『무슨 冊이어. 이년 너도 엇단 남학생의 첩이 되어서 獨立新聞을 돌리는구나. 응』(1)

13) 其月, 『피눈물』, 『독립신문』, 1919.8.21.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인용 구절 뒤 괄호 속에 연재 횟수만 기입함.

14) 외, 『中學校訪問記』, 『청춘』 3호, 1914.12, 80-81면.

15) 최주환, 『보성중학과 이광수』, 『근대서지』 11, 2015.6, 161-174면. 이광수는 1914년 2월 완공된 보성학교 전경을 보았으며, 당시 사진 속에는 두 개의 기둥 위에 구형 양등이 달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주환의 언급을 참조 및 수용했다.

이 말에 그 부인은 입에 썩을 문 치로 씹으려고도 아니하고 우뚝하니 안져서 영치를 본다. 그러면 이 녀즈는 무엇일가 하였다. 『남의 첩』이라는 생각도 난다.(88)16)

『피눈물』에서 순사가 길거리에서 정희를 보고 무턱대고 ‘남학생의 첩’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온다. 처음 보는 여성을 ‘첩’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생똥맞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광수의 『무정』에도 열차에서 일복을 입은 부인이 영채를 ‘남의 첩’으로 생각한다. 또한 선형은 형식이 영채를 찾아가자 자신이 ‘이형식(남)의 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등 ‘첩’이 무려 10차례 등장한다. 이광수는 『무정』에서 첩이 ‘일부다치’제의 산물로 “조선의 도덕”(110)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술했다. 젊은 여자에 대해 요량 없이 ‘첩’으로 간주하는 『피눈물』의 서술자의 의식은 『무정』과 닮아 있다.

그리고 『피눈물』에서 순사는 정희가 들고 있는 무언가를 대번 ‘독립신문’이라 했다. 이 작품은 “三月一日 以後”(2), “四日來의 첫 잡”(2)으로 보아 1919년 3월 4일을 배경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독립신문’은 ‘조선독립신문’을 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독립신문은 1919년 3월 1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3월 2일 제2호가 나왔다.<sup>17)</sup> 그런데 이 ‘독립신문’이라는 기표는 『피눈물』의 게재지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독립신문』의 창간과 더불어 게재되었다. 신문이 창간된 날부터 그것도 11회나 연재되었다는 것은 기월이 신문과 밀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곧 신문 발간에 참여한 사람이 신문의 발간을 염두에 두고 『피눈물』을 써서 실었음 가능성을 시사한

16) 춘원, 『무정』, 『매일신보』, 1917.2.1.,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인용 구절 뒤 괄호 속에 연재 횟수만 기입함.

17) 『조선독립신문』은 현재 창간호(1919.3.1.), 2호(3.2), 6호(3.15), 9호(3.24), 11호(3.21), 17호(3.28), 32호(6.6), 40호(8.12), 41호(8.15), 42호(8.20), 43호(8.21) 등이 이승만연구원,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에 남아있다.

다. 이 신문에는 이광수, 이영렬, 주요한, 조동호, 박현환, 김여제, 차이석이 각각 사장 겸 주필, 영업부장, 출판부장, 기자 등으로 활동했다. 특히 이광수는 사장 겸 주필이었으며, 「피눈물」을 실은 ‘문예란’도 그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창간호부터 논설을 쓰고, 「개조」 역시 창간호부터 23호(1919.10.28.)까지 18회 연재할 수 있었다.

「물어보닛간 이름(름-인용자)은 말을 아니하고 어비라고만 그래요.」

允變은 工業專門學校의 朴巖君이 온 줄을 알고 AB라는 것을 어비라고 들은 아밤이 우수와서 우슨 후 별책 날어나면 서,(4)

선형이가 두 손으로 공칙에다 연필을 바쳐 형식을 준다. 형식은 공칙을 펴노코 연필삿을 조사흔 뒤에 쪽々히게 a, b, c, d를 쓰고, 그 멧혜다가 언문으로 「에이」 「비」 「씨」 하고 발음을 달아 두 손으로 선형에게 주고 드시 순익의 공칙을 당기어 그딴로 향앗다.(3)

또한 「피눈물」에서 박암을 ‘AB’로 지칭한 것은 독립운동가의 신분(이름)을 숨기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그런데 서술자는 하필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였다. 이광수는 「무정」에서 직접 a,b,c,d를 언급하는가 하면, 『재생』에서는 「I can hear my saviour calling」의 가사를 영어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2.8독립선언서」와 「3.1독립선언서」를 번역할 정도로 영어에 능했다. 그런 까닭에 단재는 춘원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sup>18)</sup> 「무정」에서 이형식이 영어교사로 나온 것도 그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비록 박암을 ‘암박’의 이니셜 ‘AB’로 했을 수 있으나 영어에 대한 선호 및 친숙성

18) 이광수, 「脫出途中의 丹齋印象」, 『朝光』, 1936.4, 210면.

을 전제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광수와 의 인접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피눈물』이라는 제목에 관한 것이다.

그의 소설이나 시에는 『사랑』이니 『키스』니 『오오 나의 생명인 여왕』이니 『처녀』니 『피눈물』이니 『펼 펼 씌는 피』니 『달 싹한 설음』이니 이러한 문자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한참 중등 정도 남녀 학생에게 꽤 환영을 받았다.<sup>19)</sup>

위 내용은 이광수의 『재생』에 나온 구절이다. ‘그’는 ‘한창리’로 신문이나 잡지에 연애소설을 쓰며, ‘인생’, ‘예술’, ‘사랑’을 지껄이는 일류 문사라는 측면에서 이광수가 자신의 모습을 통해 그려낸 인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이광수의 『血淚』(『태극학보』 26, 1908.11)와 『사랑인가(愛か)』(『白金學報』 19, 1909.12)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sup>20)</sup> 전자는 ‘희랍인 스파르타쿠스의 연설’을 번역하면서 『血淚』를 제목으로 사용했으며, 후자는 제목에 ‘사랑’이 들어있다.<sup>21)</sup> 이광수는 『개척자』(1918), 『광복회 기도회에서』(1921)도 ‘피눈물’을 사용했고, 『단종애사』(1928)에서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이광수가 ‘피눈물’을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에서도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재생』에서 언급한 ‘피눈물’을 『독립신문』의 『피눈물』과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피눈물』의 마지막 퍼즐은 ‘독립청년단’이라는 것이다.<sup>22)</sup>

그래서 이 두 어린 勇士를 國葬으로는 못하더라도 살아남은

19) 長白山人, 『再生』(188), 『동아일보』, 1925.8.29.

20) 『무정』에는 ‘키스’, ‘생명’, ‘피’, ‘설음’ 등이 나온다.

21) 李寶鏡, 『血淚』, 『태극학보』 26, 1908.11 ; 최주한 편, 『이광수 초기 문장집 I』, 소나무, 2015, 28-30면.

22) 이 ‘독립청년단’ 부분 역시 최주한 선생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同志들의 精誠껏 獨立青年團의 團葬으로 하기로 하였다.(11)

朝鮮青年獨立團은 我二千萬民族을 代表하여 正義와 自由의 勝利를 得한 世界萬國의 前에 獨立을 期成하기를 宣言하노라.<sup>23)</sup>

『괴눈물』에서 동지들은 정희와 윤섭의 장례를 ‘獨立青年團의 團葬’으로 하였다. ‘독립청년단’과 밀접한 단체로 1919년 3월 조재건, 함석은 등이 만주에서 조직한 ‘대한독립청년단’과 1920년 김봉규가 평안남도 지역에 조직한 ‘대한독립청년단’이 있다. 그런데 ‘독립청년단’은 “백명 동지”(1)를 가진, 경성“工業專門學校”(4)의 박암이 주도하고, “高等女學校派”·“男女學生團”(5) 등으로 구성된, 그리고 1919년 3월에 이미 활동한 단체라는 점에서 ‘대한독립청년단’과는 거리가 있다. 그것은 이광수가 『2.8독립선언서』에서 언급한 ‘朝鮮青年獨立團’에 가깝다. 물론 소설이니까 실제의 단체와 무관하게 명명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소설이더라도 당대 사건을 형상화할 경우 사실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다. ‘독립청년단’은 『2.8독립선언서』에 제시된 ‘조선청년독립단’으로부터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청년독립단’을 ‘독립청년단’으로 바꿔 부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독립청년단’은 “獨立黨의 青年”(2), 곧 ‘독립당’이 ‘독립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에서 이광수가 참여했던 ‘신한청년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광수는 1919년 신한청년당에서 『신한청년』의 주필로 활동하였는데, 그 단체는 달리 ‘신한청년단’으로도 불리어졌다. 그러므로 ‘독립청년단’과 ‘독립당’은 기월과 이광수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는 것이다.

23) 『선언서』, 『신한청년』 1, 1919.12. 13면.

#### 4. 「피눈물」과 「무정」의 문체적 동일성

내용만으로는 저자를 논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피눈물」의 문체를 이광수의 문체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광수의 작품으로는 우선 「무정」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또한 「피눈물」과 같은 시기 『독립신문』에 발표된 이광수의 글들을 참조하기로 한다. 작가의 문체가 서술어에서 보다 잘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서술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독립신문』은 “朝鮮文 聖經에서 活字를 골라서 商務印書館에 주어서 字母를 만”들어 사용했지만,<sup>24)</sup> 활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sup>25)</sup>

##### 1) 현재형 서술어의 우세

	「피눈물」 1회(1919.8.21.)	「무정」 1회(1917.1.1.)	비고
현재형	올나간다, 불어 보내인다, 지나간다, 붓터 슌다, 나스다, 온다, 진다, 向한다	간다, 숙여진다, 생긴다, 불어본다, 일어논다, 밋는다, 들어간다, 드러다본다, 숙인	

24) 주요한, 「記者生活的 追憶」, 『신동아』, 1934.5, 124면.

25) 이는 『독립신문』 광고에서도 드러난다. 독립신문사에서는 “今日 國文活字 缺乏에 對한 苦痛을 海內外 有志의 同感하는 べ”라고 하며, “公共에 獻하기 爲하여 各號 鉛字를 實費로 提供”(『독립신문』, 1919.8.21.)한다고 신문 창간호부터 광고하였다. 독립신문사 역시 국문활자가 턱없이 부족하였음은 신문 지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눈물」만 하더라도 두 글자를 한 글자로 사용하는 방법(‘동생’의 경우 ‘동’자가 부족하여 ‘도○’으로 표기), 글자의 획을 지워 사용하는 방법(‘웃’의 경우 ‘웅’에서 아래 부분을 지움), 음가를 줄여 쓰는 방법(‘다음’의 경우 ‘담’으로 제시), 음가를 늘려 쓰는 방법(‘섬’을 ‘서움’으로 표기), 가깝거나 비슷한 글자로 대체하는 방법(‘웃는’을 ‘뭇는’, ‘잔되’를 ‘잠되’, ‘호미’를 ‘허미’, ‘외’를 ‘외’등으로 표기) 등 다양하다. 당시 “중국인은 한자만, 한국 사람은 한글만 뽑아서, 조판할 때 조판식으로 섞어 말을 연결시킨 다음 整版”하였기에 조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실수도 있었다. 그래서 『독립신문』에서 글자의 오류는 식자공의 오식, 활자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등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주요한, 『上海版 獨立新聞과 나』, 『아세아』, 아세아사, 1969, 7.8, 152면.

		다, 후려친다, 내려간다	
과거형	못하였다, 되었다, 썩었다, 들었다, 씹었다, 업었다, 까號하였다	우셨다, 들었다, 혼들었다.	

위의 표에서 보듯 『피눈물』은 현재형 서술어가 우세하다.<sup>26)</sup> 1회를 예로 보면 과거 시제에 비해 현재형이 현저히 많다. 서술자가 현재형 위주의 시제를 썼음을 알 수 있다. 이광수의 『무정』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역력히 드러난다. 같은 1회를 두고 볼 때 과거형보다는 현재형 시제가 훨씬 많다. 시제의 측면에서 기월이나 춘원 모두 동일한 성향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주요한의 『마을집』(1917)은 과거 시제가 현재 시제보다 현저히 많은, 과거 시제 중심의 서술을 보여준다.

	『피눈물』 현재형	『무정』 동일/유사 표현
‘나다’ 형	올나간다·보내인다·지나간다·스ندا·나스다·온다·진다(1), 만진다·올나온다(3), 운다(3,10), 두른다·두룬다(4·9), 붓친다·부친다(4·9) 드러내인다·넉인다·잡는다(5), 날니인다·다무룬다(6), 몰린다·떨어진다·살라바린다·끌허오른다(7), 부른다·붙는다(7·8), 날어난다·씩꾸러썩린다·썩는다(8), 바라본다(9), 본다·바친다·돌아간다·들어온다·쓸어진다·숙인다·홀린다·감는다	올라간다(61,78), 보낸다(79,119), 지나간다(21:14회), 선다(108,120), 나선다(16), 온다(2:8회), 주인다(61)·취인다(116), 올나온다(4), 운다(4:12회), 두룬다(103), 붓친다(62), 넉인다(70:4회), 잡는다(39:9회), 날린다(32,55)·날닌다(86), 담은다(124), 몰린다(71), 썩어진다·떨어진다(42:11회), 부른다(21:12회), 일어난다(77)·이러난다(84:2회), 썩었다(59), 바라본다(87:6회), 본다(2:96회), 밧

26) 이 표에서 『피눈물』과 『무정』에 나타난 표현들은 연재 횟수를 표기했다. 또한 이 장에서 『독립신문』에 실린 작품의 경우 제목 및 날짜를 표기하기로 한다.



	(10), 기다린다 · 소군거린다 · 중어린다 · 흐른다 · 사라간다 · 담는다(11)	친다(21), 돌아간다(37;5회), 들어온다/드러온다(48;6회), 쓸어진다(6) · 쓰러진다(34), 숙인다(1;16회), 흘린다(64;120), 감는다(4;5회), 기다린다(26;3회), 흐른다(15;9회), 사라간다(74), 담는다(77)
‘한다’ 형	向한다(1), 避한다(2), 告한다(2,9), 慟哭한다(2), 의론한다(2), 感한다(4), 躍動한다(5), 進擊한다(6), 唱和한다(8), 엄살한다(8)	향한다(29)
‘하다’ 형	暗黑하다(4), 發하다(8), 亂刺하다(8)	만무하다(5), 서늘하다(29), 발한다(51,118), 침착하다(87), 격격하다(119), 잠잠하다(122) 등

위의 표에서 왼쪽은 『피눈물』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ㄴ다’ 형의 서술어와 ‘한다’, ‘하다’ 등의 서술어의 예이다.<sup>27)</sup> 그리고 오른쪽은 『피눈물』에 나타난 서술어와 같거나 유사한 표현을 『무정』에서 찾아내어 제시한 것이다. ‘ㄴ다’의 경우 동일한 형태의 표현이 『무정』에도 잘 드러난다. 그런데 ‘선다’가 『피눈물』에서는 ‘슨다’, 『무정』에서는 모두 ‘선다’(12군데)로 제시되어 다른 모습을 보인다. 『피눈물』의 ‘둘러선’(10)은 『무정』의 ‘둘러선’(121)과 같은데, 나머지가 다른 것은 ‘선’이라는 글자의 부족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글에서도 ‘선’이라는 글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피눈물』의 ‘소리가 일어난다’(9)는 『무정』의 ‘소리가 이러난다’(122)로, 그리고 『피눈물』의 ‘소리를 내어 운다’(10)는 『무정』의 ‘소리를 너어 운다’(6) ‘소리를 너어 운다’(39·51)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27) 이밖에도 일부이긴 하지만, ‘되다’ 형으로 捕縛되다(2) 表現되다(4), 기본형으로 나뉘까다(7), 적시다(8), 쫓기다(8), 분절느다(8), 찌꾸러지다(8), 나다(11) 등이 있다. 아울러 표 속에서 ‘지나간다(21;24회)는 『무정』에서 ‘지나간다’라는 표현이 연재 21회차에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24군데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ㄴ다’의 경우처럼 『피눈물』에 나타나는 수많은 현재형이 『무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서로의 동질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다’ 형에서 ‘告한다’, ‘感한다’, ‘唱和한다’, ‘掩殺한다’ 등은 한문식 어투이다. 이 가운데 『무정』에서는 ‘향한다’만 나타나는데, 그것이 『개척자』에서는 ‘向한다’(『매일신보』, 1918.1.23.)로 나온다. 한 연구자는 『개척자』의 국한문체를 두고 “지식청년들을 소설 독자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풀이했는데 수긍할 만하다.<sup>28)</sup> 『피눈물』의 문체적 선택은 이러한 독자적 요소뿐만 아니라 국한문체를 추구한 『독립신문』의 매체적 특성도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暗黒하다’, ‘發하다’, ‘亂刺하다’ 등도 ‘하다’ 형으로 나타났다. ‘암흑하다’처럼 형용사인 경우는 ‘하다’ 형이 어색하지 않으며, 『무정』에도 그러한 용례가 무수히 있다. 그러나 ‘發하다’, ‘亂刺하다’의 경우 ‘ㄴ다’ 형이 오히려 무난하다. 『무정』에는 ‘발한다’가 두 군데(51, 118) 나온다. 아마도 ‘발한다’, ‘난자한다’에서 ‘한’자의 부족으로 인해 ‘하’로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29)</sup>

## 2) ‘리라’, ‘ㅂ시다’ 형 표기

『피눈물』에는 여러 가지 독특한 표현이 있다. 먼저 미래형이면서 의지 내지 회원을 드러내는 ‘리라’라는 표현이 있다. 그것은 “새기리라.(6) 入하리라(7), 끝하리라(7)”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번 血管이 터져 내어썩는 날 저 太極旗를 내리는 무리를  
아니 태우고는 말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쓸허 구름이 되리라.

28) 김영민, 『한국 근대문학과 원전(原典) 연구의 문제들』, 『현대소설연구』 57, 현대소설학회, 2008.4, 16면.

29) 민현기는 이를 각각 “發한다”, “亂刺한다”로 입력했다. 그것은 『독립신문』의 한자 부족에 따른 오류를 감안하여 고친 것이다. 민현기 편, 앞의 책, 16-17면.

비가 되어 저들의 서음나라를 씨서내리라. 그 피가 쓸허 불근 불길이 되리라, 불길이 되어 太極旗를 侮辱하는 저들의 서음나라를 태우리라. 태우되 一草一木도 남김이 업고 九州의 쫓쳐서 千島의 쫓쳐지 식은 재를 만들고 말리라. (7)

그늘 저녁에 한 자리에 누워 서로 꼭 끌어안고 지나간 칠팔년간의 고싱하던 것과 서로 싱각하고 그리워하던 말을 흐리라. 그썩에 영척가 깃분 눈물로 벼기를 적시며 속에 싸히고 싸혔던 정회를 풀 썩에 나는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전신을 바르르 썰며 영척을 씩안으리라. 그러면 영척도 너 가삼에 니마를 다하고 「에그 이것이 꿈인가요」 하고 몸을 썰리리라. 그리후 후에 나는 일변 교스로 일변 저술로 돈을 벌어 씨끗흔 집을 짓고 자미잇논는 가정을 일우리라.(12)

위 예문은 3.1운동에서 죽어간 우리의 생명들이 끝내 섬나라 일본을 섬멸하고 말리라는 「피눈물」의 내용이다. 곧 그들의 피가 구름, 비로 되어 섬나라 일본을 씻고, 또한 불길이 되어 섬나라를 태우리라는 것이다. 아래 예문은 형식이 영채를 만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무정」의 내용이다. 그리움이 눈물로, 다시 전율로 나아가며, 결국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는 것이다. 서술자의 머릿속에 전개된 ‘~리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그래야 한다’는 서술자의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이다. 비록 상황은 다르더라도 기월과 춘원은 ‘~리라’라는 서술어의 반복을 통해 열거와 점층, 그리고 강조를 드러내고 있다.

日인이 내리는 족족 우리 품속에 無限한 太極旗를 내어 달 시다. 日인이 죽이는 족족 二千萬의 임(임-인용자)을 다 들어 萬歲를 부릅시다. 大韓同胞여. 목숨이 그러케 앓가우닛가. 奴隸로라도 그다지 살아야 하겠습닛가. 同胞여 살아서 奴隸가 될야 거든 차라리 죽어 自由의 鬼神이 되(되-인용자)시다. 同胞여.

만일 大韓의 獨立을 爲하여 大韓民族의 自由를 爲하여 죽을 決心을 하였거던 이제 一齊히 大韓獨立萬歲를 부릅시다.(7)

「우리가 늙어 죽게 될 썩에는 괴어히 이보다 혈신 묘흔 묘션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게으르고 힘업던 우리 죠상을 원흔는 것을 심각하야 우리는 우리 즈손에게 고마운 조상이라는 말을 듯게 합시다.」(124)

위의 것은 대한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군중을 향해 연설한 내용이다. 서사의 맥락상 윤섭이 한 연설로 보인다. 그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모두 나서서 독립만세 외치기를 요청하였다. 아래 것은 「무정」의 대미로 이형식이 선형과 영채 병욱에게 지식과 문명, 교육과 실행을 강조한 말이다. 그는 ‘훨씬 좋은 조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요청했다. 이러한 계몽의 언술은 연설에 더욱 적절하다. 「피눈물」에 나타난 대중적인 연설은 「무정」의 계몽적 어투와 닮아있다.

### 3) ‘듯하다’, ‘것 같다’ 형의 표기

「피눈물」에서는 ‘듯하다’라는 표현이 많다. 그것은 사태를 짐작하거나 추측할 때 쓰는 말이다. 짧은 소설에서 이례적이라 할 만큼 많이 나온다.

狂한 듯시(1), 나는 드시(2), 밋친 듯이(3) 근심스러운 듯시·感激한 듯시·安心한 듯시·享樂하는 듯이(4), 得한 드시·悔한 드시(5) … 치운 듯시·업는 듯이·씨여질 드시(11)

미친 드시(11), 안심흔 드시(61), 업는 드시(63), 치운 듯이(66), 업는 듯이(93), 감격흔 듯이(125)

『피눈물』에서 ‘덧시’, ‘덧이’, ‘드시’는 동일한 표현이다. 그것은 활자 부족에 따라 쉽게 조판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로 풀이된다. 『피눈물』에서 ‘덧이’(덧시:10회 덧이:4회, 드시:7회)는 모두 21차례 나타날 정도로 빈도수가 높다. 이광수의 『무정』에서는 228차례에 걸쳐 등장한다. 위에서 동일한 것의 반복을 6개 제시했는데, 총 21개 가운데 6개는 동일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그러한 표현은 『피눈물』과 같은 시기 『독립신문』 이광수의 글에서도 “忘却한 덧시”(『개조』, 1919.10.7)와 “不過하는 드시”(『간도 사변과 독립운동의 방침』, 1920.12.18)처럼 나온다.

붓칠 뜻한(2), 家族인 뜻한(10) / 重하여지는 뜻하야·逆流하는 뜻하야(1)

重한 뜻도 하고 輕한 뜻도 하다(1) / 生存하는 뜻하다(4)

기싱인 뜻흔(4) 누이인 뜻흔(14) / 무시흔는 뜻햐(19), 가삼이 타는 뜻햐(52)

피곤흔 뜻도 헝고, 술취흔 뜻도 헝다.(94) / 의원(哀願)헝는 뜻햐(99)

위 『피눈물』에서 ‘뜻한’은 모두 2군데, 아래 『무정』에서는 48군데가 등장한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쓰임새가 나타나고 있다. ‘뜻하야’는 『피눈물』에 4군데, 『무정』에 28군데 등장한다. 그리고 ‘뜻도 하고 ~ 뜻도 하다’는 형태는 『피눈물』에 1군데 나오지만, 『무정』에는 4군데 나타난다. ‘뜻하다’의 경우 『피눈물』에서 1군데, 『무정』에서 48군데 나온다. 그 쓰임새가 다르지 않다.

쓸어갈 것 갓다(3), 에워싼 것 갓다(6), 記憶해두려 함인 것 갓다(10), 쓸어올니랴는 것 갓다(11)

끌고 들어가는 것 잣다.(74) 부러주는 것 잣다 · 드러가는 것  
 잣다.(118)

‘것 같다’는 추측이나 불확실한 추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것이  
 다수가 등장하는 것은 서술자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피눈물  
 』에서는 위에서 보듯 4군데 나타난다. 총 11회 연재의 소설에서 그  
 것은 적은 수가 아니다. 『무정』에서 ‘것 같다’는 표현은 54군데 나온  
 다. 이는 서술자가 판단을 유보하고 독자에게 판단하도록 하는 역할  
 을 한다. 『피눈물』과 『무정』의 서술자는 이처럼 동일한 서술 태도를  
 보여준다.

#### 4) ‘그려’, ‘싶다’의 표기

‘~그려’는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쓰는 표현으로, 『피눈  
 물』에서 5차례 반복될 정도로 빈도수가 높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무정』에도 여실히 나타난다.

잡혔네그려(4), 가져왔쎄그려 · 오데그려 · 달았네그려 · 잇겿  
 네그려(5)

왔네그려(75) 쟁잡았네그려 · 들데그려(77), 살아잇네그려  
 (105) 큰일났네그려(109)

『피눈물』에서 ‘~그려’는 5군데, 『무정』에서는 45군데가 사용되었  
 다. ‘~그려’가 당시에는 일반적 표현은 아니었지만, 이광수의 작품  
 에는 그러한 문체들이 나타난다. 『독립신문』에는 이광수의 『크리스  
 마스의 기도』에도 “誣陷합니다그려”, “나감니다그려”가 사용되는 등  
 이광수의 문학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표현이다. 이것은 문체적 공통

성 내지 동일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피눈물』에는 서술어로 ‘싫다’, ‘싫었다’가 등장한다. 이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眩氣가 生하며 四肢가 麻痺하야 道路上에라도 쓸어지고 쉽다.(1)

가슴이 터지도록 사모친 恨을 풀고 시퍼다.(3)

무엇에 기적이고 쉽고 누구에게 안기고 쉽다.(94, 총 7회)

형식은 어서 영칙의 그 후에 지난 노력을 두고 실했다.(12, 총 17회)

위의 표현은 『피눈물』의 것이요, 아래 것은 『무정』의 것이다. 『피눈물』에는 ‘싫다’와 ‘싫었다’가 각각 1군데 등장하지만, 『무정』에는 7군데, 17군데 등장한다. 『무정』에서 빈도수가 높으며, 『피눈물』에서는 비록 1군데이긴 하지만 그러한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두 작품의 상관성 내지 동일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5) ‘~언정’, ‘~제’의 표기

또한 『피눈물』에는 『무정』과 동일성을 갖고 있는 표현이 있다. ‘~지언정’으로, 이는 일반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즐지언딩 짜리지 말고 죽을지언딩 죽이지 말나(5)

우리 肉禮(體-인용자)는 죽일지언정 精神은 못 죽이리라(8)

일흠은 고칠지언딩 성조차 고쳐으랴(29)

기월의 위 『피눈물』에는 ‘~지언정’의 문체가 2군데 등장하고, 아래 이광수의 『무정』에는 한 군데 드러난다. 그 숫자만으로 볼 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광수가 1919년 무렵 『독립신문』에 쓴 글을 보면 이러한 표현은 훨씬 많다. 이를 ‘A언정 B’라고 할 때 A는 수용 가능태로, B는 비수용 내지 반수용태로 제시된다. 이런 경우 후자를 강조하기 위해 전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有形한 國土는 차라리 失할지언정 先祖의 精神이야 엇지 잠  
(참-인용자)아 失할가(『창간사』, 1919.8.21)

新羅의 犬이 될지언정 日本의 奴는 아니되리라(『개조』,  
1919.9.6)

大韓國民으로 鬼神이 될지언정 倭奴의 新附民으로 奴隸는  
아니되리라(『개조』, 1919.9.18)

차례대로 『창간사』와 『개조』에 포함된 글이다. 첫번째 표현은 ‘肉體는 죽일지언정 精神은 못 죽이리라’라는 표현에 닿아 있다. 세번째 것은 앞서 언급한 “同胞여 살아서 奴隸가 될야거든 차라리 죽어 自由의 鬼神이 되(뉘-인용자)시다.”(7)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곧 박제상(두번째)의 말 ‘新羅의 犬이 될지언정 日本의 奴는 아니되리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광수가 ‘~지언정’이라는 표현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自己 먼저 萬歲를 부를 제(10)

兩個 異棺이 靑天 밧헤 쫓엇시 들어날 제(11)

이 편지 맛초고 붓을 세라홀 제(50)

평양식지 사라갔다는 말을 드를 제(116)



한편 ‘제’는 ‘적에’를 의미하는 말로, 위 「피눈물」에는 모두 3군데, 아래 「무정」에는 8군데가 나온다. 이러한 표현은 같은 시기 다른 작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피눈물」의 경우 저자가 좁혀지는데, ‘기월’의 문체가 춘원과 다르지 않다면 이 역시 예사롭게 볼 문제는 아니다.

#### 6) ‘찍히다’의 표기

「피눈물」에서 저자가 강조하여 드러내려고 하는 인물은 두 팔이 잘려 나가면서도 만세를 부른 처녀이다.

處女는 남은 팔도 그 칼에 찍혀(8)

軍刀에 그 青年은 처음에 엇개를 찍히고 · 日巡查의 칼에 왼  
억개에서부터 肺에 達하게 찍히어 찌꾸러지다(8)

팔 찍힌 女學生 · 팔 찍힌 女子(9), 팔 찍한(힌-인용자) 女子  
(10), 팔을 찍힌 貞姬(11)

‘기월’은 칼에 두 팔이 잘린 정희와 어깨와 다리 심지어 폐까지 베인 윤섭에 대해 모두 ‘(칼에) 찍히다’는 표현을 썼다. 차그마치 7군데나 그렇게 썼다. 그런데 여기서 기월과 이광수 사이에 동일성이 드러난다. 칼로 무엇을 나눌 때 ‘자르다’, ‘베다’ ‘꿨다’ 등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칼로 ‘내리치다’, ‘베다’ 등을 쓰고, 도끼로 ‘내리찍다’와 같은 표현을 쓴다. 그런데 기월은 줄곧 ‘찍다’라고 표현했다. 이광수는 팔 잘린 소녀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싶어 했으며, 그래서 「팔 찍힌 소녀」라는 시에서 “日兵의 칼이 하얀 그의 두 팔을 찍었다”라고 했다. 이것은 독특한 사례로 판단된다. 물론 이것이 이광수만의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sup>30)</sup> 그러나 같은 표현을 빈도수가 높게 쓰고

30) 한편 유사한 표현이 柳榮의 「새빛」(『독립신문』, 1920.3.1.)에 “내 팔을 찍으라

있다는 것,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을 일반화해 쓰고 있다는 것은 동일 저자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 7) 각종 동사 명사 부사의 표기 공통성

여기에서는 동사의 활용, 명사, 부사 등의 표기 방식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한다. 『피눈물』에는 다양한 표현이 나온다.

- ㉠ 쥐다: 진다(1) 주인(6) / 주인다(62) 쥐인다(116)
- ㉡ 다투다: 다투다가(2) 다투더니(10) / 다투어(31) 다투어 · 다투더니(56)
- ㉢ 다니다: 다니면서(2;4회) 다니면서(10) / 다니며(2) 다니다가(5)
- ㉣ 모이다: 모혀(2;4회) / 모혀(2;24회)
- ㉤ 맞다: 맞아야(5) 맞지(5) / 맞기도록(2) 맞길(2) 맞아서(2) 맞하(5)
- ㉥ 다물다: 다무른다(6) / 다문(3) 담을고(86) 담은(99) 담은다(124)
- ㉦ 내리다: 내려(6;6회) 내리(7;4회) / 내려(1) 내려(120) 내려(123)
- ㉧ 몽치다: 몽치노코(7) / 몽치지고(66) 몽치(112)
- ㉨ 두르다: 둘너(8) 둘너설다.(9) / 둘러서고(9) 둘러막고(13) 둘너안즌(56)
- ㉩ 그르다: 글느고(9) 그르고(10) 그른다(11) / 그르기를(2) 그르고(4,25)
- ㉪ 하염없다: 하염업는(11) / 하염업시(1) 하염업시(10) 하염업시(16) 하염업시(106)<sup>31)</sup>

---

다리도 버히라"와 로정민의 『피의 성공』(『신한민보』, 1919.4.15.)에 "대한 만세를 붙으는 손을 찌른 후"에도 보인다. 아울러 후자의 기사 속 그림 설명에서는 "왜놈들이 우리 인국 녀학생의 팔을 칼로 잘으던 참상"이라 하여 '자르다'를 썼다.

위의 표현들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것은 ㉠, ㉡, ㉢ 정도이다. 나머지는 『피눈물』의 앞 표현이 뒤의 『무정』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 경우 ‘권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터인데, 이는 『독립신문』에 실린 이광수의 다른 글에서 전혀 용례가 없다는 점에서 글자 부족에 따라 ‘권’에 가까운 ‘진’으로 식자한 것으로 보인다. 7회에는 『무정』처럼 ‘권’을 ‘주인’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 ‘다무런다’는 현재형보다 과거형 ‘다무렀다’로 생각되는데, ‘럿’자 대신에 ‘런’을 식자한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의 『개척자』에도 ‘다물었다’(『매일신보』, 1918.1.26.)가 나온다. ㉢은 『피눈물』에서 ‘글느고’와 ‘그르고’가 함께 쓰였지만, 『무정』에는 ‘그르고’로 나온다. 전자가 저자의 표기 혼란인지, 아니면 식자공이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기존 논자가 ‘춘원의 작품으로 보기에 난점이 있다’고 한 것이 이러한 문체적 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서 보듯 『무정』에도 문체적 혼란이 심한 편이다. 오히려 『피눈물』의 “웃고름을 그르고”(10)가 『무정』에도 “웃고름을 그르고”(25)처럼 똑같이 나타나는 등 같은 저자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종이: 죠의(1) / 죠희 · 조희(51)

옆구리: 녀(넙)구리(2) 녀쑤리(8) 넙구리(10) / 옆구리(5, 26)

옆쑤리(26)

냄새: 내암새(2,10) / 님새(1)

이불: 니불(2) / 니블(14)

아침: 아적(3) 아참(7) 아침(3,5,6) / 아참(5)

골목: 고을목(5) 굴목(1,3,7) / 골목(1,29,58,72)

소리: 소래(7) 소리(1) / 소릭(1) 쇼리(2) 소리(2)

꼭대기: 꼭닥이(7) / 꼭딕이(62)

기둥: 기둥(7) / 기둥(55) 기둥(120)

31) 『피눈물』의 어휘 용례는 빗금의 왼쪽 / 『무정』의 어휘 용례는 빗금 오른쪽에 배치했다.

그들: 그네(7,11) / 그네(7)  
 먼지: 먼지(8) / 먼지(24,101)  
 어깨: 어깨(8) 엇개(8) / 엇기(6) 엇기(57)  
 원편: 외인편(8) 원편(8) / 원편(11,26)  
 모퉁이: 모퉁이(9) / 모퉁이(26)  
 이야기: 니야기(10,11), 니약니(11) / 니야기(6) 리약이(6) 리  
 야기(8) 이야기(9)  
 구멍: 구녕(10) / 구녕(59,66,88) 구녕(13,55)  
 입술: 입살(10) / 입술(3,10) 입살(3,42,88) 입설(78,86)  
 호미: 허미(11) /허뢰(92)

여기에서 골목, 꼭대기, 아침, 원편 등이 문제이다. 그런데 ‘골’을 ‘고을’, ‘원’을 ‘외인’, ‘냄’을 ‘내암’으로 쓴 것은 이어쓰기의 모습이다. ‘내암새’를 ‘냄새’로 썼다면 어색하지 않는데, ‘냄새’로 쓰던 것을 ‘내암새’로 연결했다면 오히려 퇴보적인 글쓰기로 여겨지기 쉽다. 그런데 만약에 ‘골’, ‘원’, ‘냄’이라는 글자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결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골’을 ‘굴’로 쓴 것 역시 활자 부족에 따른 선택으로 보인다. ‘꼭대기’에서 ‘꼭’자가 없다면 ‘곡’으로 쓸 수밖에 없다. 아침은 ‘아침’으로 쓰다가 ‘아침’으로 써도 별 어색함이 없다. 다만 ‘아직’이라는 것은 입말에 따른 언문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독립신문』의 이광수 글에서 그러한 문체가 의외로 많이 나타난다.<sup>32)</sup> 그리고 『피눈물』에는 ‘그네’가 3군데(7회 1, 10회 2개) 등장하는데, 첫 번째(7)는 ‘한족의 소년소녀’를, 두 번째(10)는 ‘부상자’를, 마지막(10)에는 ‘서양부인들’을 각각 의미한다. ‘그들’을 의미하는 ‘그네’라는 표현은 이광수 문학에서 독특하고 사용 빈도수가 높다. 『무정』에만도 76군데 등장한다. 주요한도 이것을 사용하지만, ‘그녀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sup>33)</sup> 그런 의미에서 주요한은 ‘기

32) 김주현, 앞의 논문, 617-618면.

33) 이광수는 상해 『독립신문』에서도 여러 편의 논설에 ‘그들’ 대신 ‘그네’를 사용하

월'과 멀어진다. 한편 『피눈물』에는 “北嶽과 南山과 仁王山”(7)이 나오는데, 『무정』에서도 인왕산(78), 남산(78), 북악산(78)이 그대로 나오고, 두 작품에 ‘남대문’, ‘진고개’, ‘배오개’, ‘종로경찰서’ 등의 지명이 모두 나온다.

마치: 마치(3;4회) 맞치(9,11) / 마치(3) 맞치(19)-93회  
 마침내: 마침내는(7) 마침내(9) / 마침너(6) 맞침너(126)-49회  
 아까: 앓가(3,10) / 앓가(2)-78회  
 얼마나: 얼마롬(3) 얼마나(6) / 얼마롬(1)-40회, 얼마나(7)-24회  
 하여금: 하여곰(7) / 햏야곰(7)-18회  
 함께: 함끼(7,8) 함게(10) / 함씩(3)-28회

위의 표현들은 『피눈물』에 사용된 부사어 어휘들을 『무정』과 비교해본 것이다. ‘마치’와 ‘맞치’는 같이 사용되며, 『피눈물』은 5군데, 『무정』은 93군데가 나온다. 『피눈물』에서는 ‘마침내’와 ‘마침내는’이 모두 사용되었으나 『무정』은 ‘마침내’가 49차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광수의 『크리스마스의 기도』에서는 ‘맞침내는’이 사용되었다. ‘아까’는 『피눈물』에 2군데, 『무정』에 78군데가, ‘얼마롬’과 ‘얼마나’는 『피눈물』에서는 1군데씩 나오지만, 『무정』에서는 각각 40군데, 24군데가 등장한다. ‘하여곰’은 『피눈물』에 1군데, 『무정』에 18군데, 그리고 ‘함께’는 『피눈물』에 3군데, 『무정』에 28군데가 나타난다. 아울러 형용사 ‘어여쁜’은 『피눈물』에 ‘에업쁜’(6)이 등장하지만, 『무정』에는 엽분(4), 어엿분(10), 어업분(14,17), 에엿분(18) 등의 형태로 무려 18군데 등장한다. 이러한 표현들로 보면 『피눈물』과 『무정』의 간극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일치성은 동일 저자의 가능성을

였다. 자세한 것은 김주현의 『상해 『독립신문』에 실린 이광수의 논설 발굴과 그 의미』(『국어국문학』 제176호, 국어국문학회, 2016.9) 606-607면 참조.

더욱 보여준다. 이밖에도 『피눈물』과 이광수 소설의 공통점은 많지만, 서술상의 번거로움으로 생략한다.<sup>34)</sup>

## 5. 마무리

『피눈물』은 3.1운동을 다룬 작품으로 문체나 서사를 보면 초보 소설가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독립신문』에 관여한 사람으로 이광수, 이영렬, 주요한, 조동호, 박현환, 김여제, 차이석 등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이 정도의 작품을 쓸 만한 사람은 춘원 말고 찾기 어렵다. 특히 이 작품이 창간호부터 실렸다는 것은 신문 창간과 소설 창작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신문사와 무관한 제3자의 작품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월과 이광수의 유사성, 인접성이 현저하다. 그리고 『피눈물』은 이광수의 문체와 너무나 닮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군가 이광수 작품을 흉내내어 쓴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흉내내었다고 보기에는 이광수를 너무 닮아 있다. 작품의 문체와 사상 등이 이광수를 벗어나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개조』처럼 이광수가 신문 창간과 함께 『피눈물』을 써서 연재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광수가 3.1운동을 다룬 작품으로 『재생』, 『유랑』 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그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피눈물』이 발견됨에 따라 그

34) 『피눈물』에서 윤섭과 정희, 박암 등 인물 교차에 따른 사건 서술은 『재생』에서 봉구, 순영, 순홍 등의 교차 서술과 방법적 측면에서 같다. 그리고 『피눈물』에는 사건의 서술자로서 작가의 전지적 목소리가 몇 군데 드러나는데, 이는 이광수의 『무정』, 『재생』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피눈물』의 연재 시 작품의 서두에 연재 횟수를 1,2,3 등의 숫자로 매겨가는 것도 『무정』과 같다.

의 상해 시절은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광수는 상해에서 『독립신문』이나 『신한청년』에 무수한 작품을 발표하였지만, 귀국 이후 이 작품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제의 가혹한 통치와 해방 후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제 『피눈물』도 이광수의 문학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상해 시절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상해 망명 시절 이광수의 문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독립신문』, 『신한민보』, 『매일신보』, 『신한청년』, 『청춘』, 『조광』
- 김윤식, 『개정 증보 李光洙와 그의 時代1』, 솔출판사, 1999.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중국신문 한국독립운동기사집(II)-3.1운동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 민현기 편,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투쟁소설선집』, 계명대학교출판부, 1989.
- 이광수, 『이광수전집』(전 11권), 삼중당, 1972.
- 최주한 편, 『이광수 초기 문장집 I』, 소나무, 2015,
- 해외동포문학편찬사업추진위원회 편, 『중국 조선족 소설1』, 해외동포문학편찬사업추진위원회, 2006.
- 권보드래, 『3·1운동과 “개조”의 후예들-식민지시기 후일담 소설의 계보』, 『민족문학사연구』 58, 민족문학사학회, 2015, 219-254면.
- 김여제, 『『獨立新聞』 시절』, 『신동아』, 1967.7, 165-167면.
- 김영민, 『한국 근대문학과 원전(原典) 연구의 문제들』, 『현대소설연구』 57, 현대소설학회, 2008.4, 9-35면.
- 김주현, 『상해 『독립신문』에 실린 이광수의 논설 발굴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76, 국어국문학회, 2016.9, 575-626면.
- 김주현, 『상해 시절 이광수의 작품 발굴과 그 의미』, 『어문학』 132, 한국어문학회, 2016.6, 219-257면.
- 이상경, 『상해판 『독립신문』의 여성관련 서사연구 : “여학생 일기”를 중심으로 본 1910년대 여학생의 교육 경험과 3·1운동』, 『페미니즘연구』, 10-2, 한국여성연구소, 2010, 89-128면.
- 주요한, 『상해판 독립신문과 나』, 『아세아』, 1969.7·8, 아세아사, 150-154면.
- 최주한, 『보성중학과 이광수』, 『근대서지』 11, 근대서지학회, 2015.6, 161-174면.
- 최 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言論活動』, 『한국사론10-대한민국임시정부』, 국사편찬위원회, 1981.12, 162-184면.



표언복, 『중국 유이민 소설 속의 3·1운동』, 『기독교사상』 711, 대한기독교서회, 2018.3, 34-44면.



<Abstract>

## Historical Research about the Writer of “Blood Tear” in *Independent Newspaper* in Shanghai

Kim, Ju-Hyeon

“Blood Tear” was published 11 times in the literature section from the first issue of the *Independent Newspaper*, to the 14th edit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first piece which directly described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novel genre. Some scholars mentioned the author of this work, Kiwol as international student, Lee Kwangsu and Ju Yohan.

You can see from the style or the lyric of this work that it is not the work of a novice novelist. Particularly the fact that this work was published from the first issue indicates that the creation of the newspaper and the creation of the novel were carried out almost simultaneously. Therefore, it is unlikely that it is a work of third party who is unrelated to the newspaper. In terms of the content of this work, it has striking similarity and proximity of Kiwol and Lee Kwangsu. In addition, the style of this work is very similar to Lee Kwangsu’s. Judging from its style and idea, it must be his work. It is most reasonable inference to think that Lee Kwangsu wrote and published “Blood Tear” in addition to the publication of the newspaper just like “Remodeling”. Lee Kwangsu dealt with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Rebirth” and “Wander”.

However, his days in Shanghai needs to be shed a new light on with a discovery of “Blood Tear” considered as his work. Now, “Blood Tear” should be included in Lee Kwangsu’s literature and established as a representative work of his days in Shanghai. This work will be an important source for judging and evaluating Lee Kwangsu’s literature during his exile in Shanghai.

Key words: Blood Tear, Independent Newspaper, Kiwol,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Ju Yohan, MuJeong, a girl with two arms cut, Historical Research about the Writer

투 고 일 : 2019년 4월 30일    심 사 일 : 2019년 5월 20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9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 2019년 6월 26일